행사알림

학생행사

2016학년도 행림제 : 2016. 10. 21(금), 의학관 김옥길홀

동창회 행사 (문의 : 02-2650-5782)

제9회 영닥터스 포럼 : 2016. 9. 3(토) 16:30,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

가을 야유회 : 2016. 10. 16(일), 강원도 영월

송년의 밤 : 2016. 12. 3(토) 16:00, ECC 이상봉홀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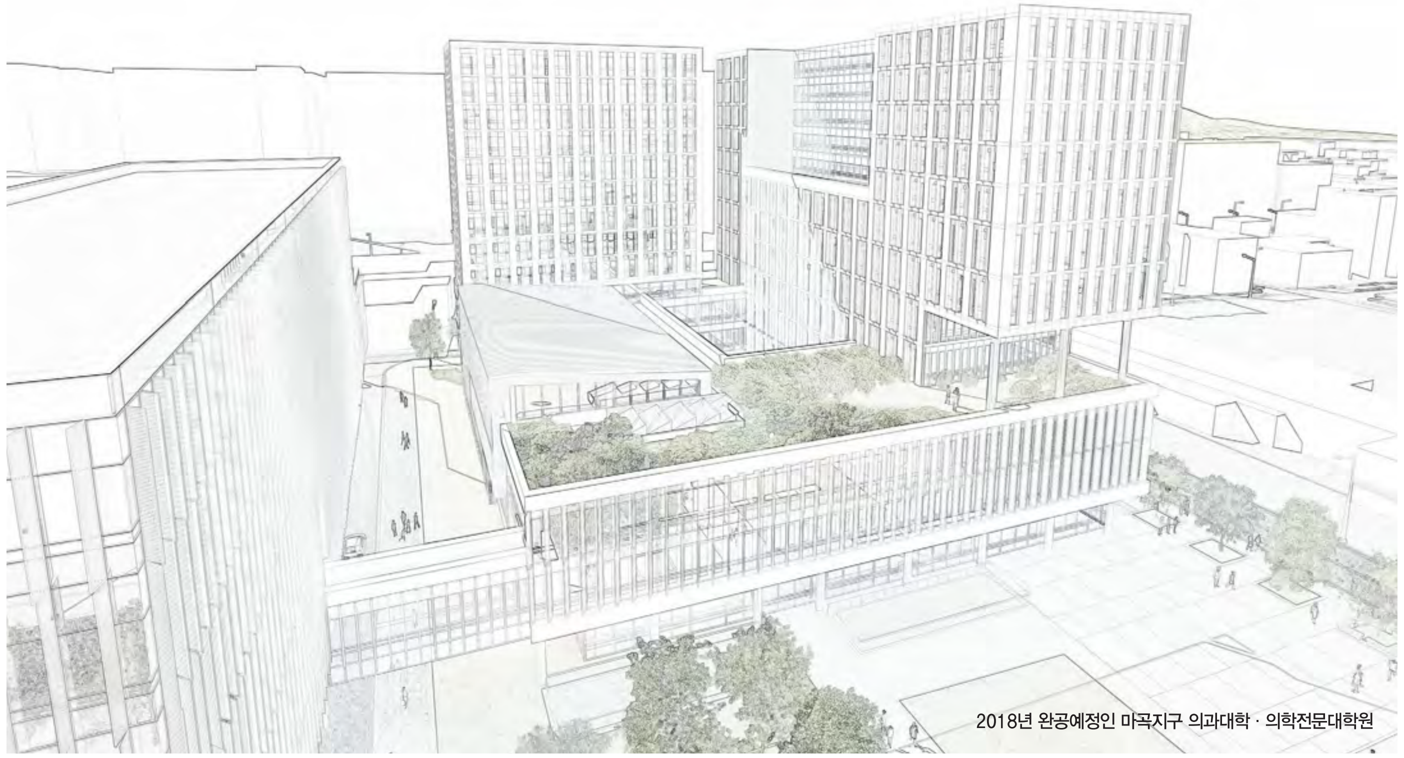
편집위원장 변성완(정보관리부장)

편 집 위 원 김윤진 · 김범산(정보관리부차장)

학생기자단 김경하, 송지혜, 김수빈, 이주연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기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2018년 완공예정인 마곡지구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2016 August No. 48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교육목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은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성취능력을 교육목표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확립한다.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자기계발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 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02 대학소식
- 2016학년도 WHITE COAT CEREMONY
- 모교 방문의 날 행사

03 동문인터뷰
- 4천여 동문을 이끄는 수장 (오혜숙 동창회장님 인터뷰)
- 나눔을 통해 행복을 얻다 (천안이화병원 이종민 원장님 인터뷰)

05 학생소식
- 의료현장체험학습
- 동아리 탐방
- 학생단신

06 교수소식
- 2016학년도 제2학기 교원 보직 발령사항
- 교수 수상 및 업적

07 동창소식
- 제10차 동기회장 및 전국지회장 정기회의

08 행사알림
- 학생행사
- 동창회행사

발행일 2016년 8월 25일 **발행인** 김경효 **편집인** 변성완 **편집기획** 의과대학 행정실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전화** 02.2650.5703~4 **팩스** 02.2653.8891

대학소식

2016학년도 WHITE COAT CEREMONY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장 김경효)은 4월 8일(금), 2학년 학생의 〈White Coat Ceremony〉를 김옥길 홀에서 개최하였다. 임상실습을 앞둔 학생들에게 의료인의 상징인 흰 가운을 교수가 직접 입혀주며 동시에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행사이다. 찬송으로 시작되어 양명수 교목실장의 봉독과 기도, 김경효 의학전문대학원장과 유경하 병원장의 축하와 격려 그리고 오혜숙 동창회장의 당부로 진행되었다. 이후 착의식에서는 단상에서 김경효 의전원장, 오혜숙 동창회장 외 8명의 교수가 각각 맡은 학생들에게 흰 가운을 입혀주었고, 흰 가운으로 착의한 모든 학생들은 "학생의사 윤리선언문"을 낭독하며 임상실습 참여에 대한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았다. 식후 행사인 남은미 교수의 특강 및 1학년 후배들의 축가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의전원 2학년 학생들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에게는 의료인의 상징인 흰 가운과 배지를 받아 앞으로 숭고한 사명감으로 임상에 임할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었다.

〈의전원 2학년 김경하 기자〉

이화의대 졸업 50주년 및 30주년 기념 모교 방문의 날 행사 개최

의과대학(학장 김경효)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30주년을 맞아 의미 있고 특별한 행사로 이화의대 졸업 50주년과 30주년을 맞이하는 동문을 모시고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김경효 학장, 김승철 의무부총장 및 오혜숙 동창회장을 포함한 많은 귀빈들이 참석하였다. '이화의대 졸업 50주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는 15회 동문 16명(대표 송소선)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8일(수) 오후 12시, 신촌 본교 ECC 케세이호에서 개최되었고, 1,150만원의 의과대학발전기금을 기부하였다. 또한 '이화의대 졸업 30주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는 5월 24일(화) 오후 7시,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올해의 이화인상 수상자인 최건무 선생님을 포함한 35회 동문 22명(대표 이명숙)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동기회 장학금 5천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축사 및 동문 소개, 그리고 감사장 및 기념품 전달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이후 프로그램으로 ECC 및 이화역사관(졸업 30주년 동문은 목동병원) 투어를 하면서 이화의대 졸업생이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동문인터뷰

4천여 동문을 이끄는 수장

20대 이화여대 의과대학 오혜숙 동창회장님(27회 졸업 산부인과)인터뷰

학생기자단 송지혜와 이주연은 의정부에 위치한 오혜숙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최근 마곡 의과대학/의전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바쁘게 뛰고 계신 동창회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성공한 의사로서가 아닌 동창회장으로서의 삶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작년 3월에 20대 동창회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이화여대 의과대학 동창회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A 이번 20대 동창회는 'TRUST'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TRUST'란, T:Trustworthy(신뢰할 수 있고), R:Respectful(서로 존중하며), U:Useful(도움이 되는), S:Share(나눔의 정신으로), T:Together(모두 함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과, 회원의 친목 ·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총회 · 이사회 · 송년회 주최 ▲영닥터스 포럼 · 가을야유회 · 골프회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 주관 ▲홈페이지 운영 ▲회원 명부 '행림' 및 '이의회보' 발간(연 3회) ▲회원의 학술 연구 지원 사업 ▲회원 관리 · 포상 · 경조 및 신입 회원 환영 사업 ▲재학생에 대한 장학 사업 및 활동 지원 ▲기타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마곡에 이화 힐링스퀘어와 의과대학/의전원을 건립하는 데에 동창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동창회장님께서는 목동병원 건립에도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번 마곡병원 건립과 의과대학/의전원을 위해서도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A 동창회는 항상 병원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과거 목동병원 설립을 위해서 많은 기금을 모아 전달한 바 있고, 이번 마곡병원의 건립에도 의대 동창회 목표액을 자체적으로 120억원 가량 설정하여, 각 기수별 동창회에서 모금운동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화에서 섬김과 나눔, 희생과 봉사정신을 보고 배웠지요. 평생 이화의 딸이 되어, 또 의사가 되어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모교 덕분이지요. 친정이 잘 되어야 저도 잘되는 것이니까 기도와 물질로 적극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화의대동창회는 다른 동창회보다 의과대학/의전원 학생들을 위해 '백분의 일의 나눔', 장학금 모금 등 장학 사업을 통해 후배들을 위해 더욱 힘쓰고 계십니다. 선배님들이 힘을 모아서 후배들에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동창회에서는 다양한 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분의 일의 나눔' 장학 사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며, 이화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분의 일의 나눔'은 기독교의 십일조와 비슷한 개념으로, 매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모아서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간 장학금 총액 수는 1억 6천 9백만원 이고 이 중 백분의 일 나눔 장학금은 1억 3백만원으로 3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동창회가 이렇게 후배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후배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후배들이 긍지를 가지고, 선배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바람에서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2016년 9월 3일에 영닥터스 포럼을 개최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닥터스 포럼을 만드신 이유와 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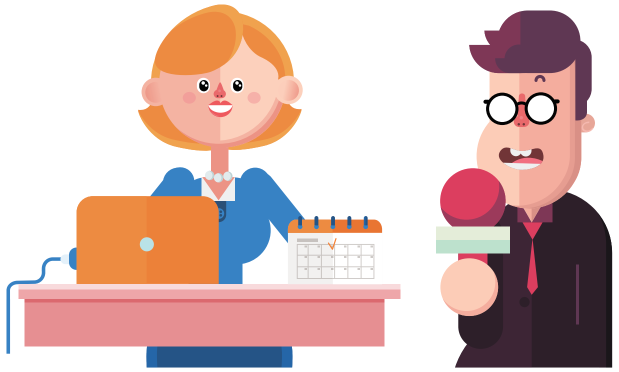
A 영닥터스 포럼은 미래 우리 동창회의 기둥이 될 젊은 동문님들을 대상으로 동창회 소개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작년엔 변호사나 의학기자, 개업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졸업생 5분을 패널로 모시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젊은 동문들에게 다양한 진로와 성공적인 개원에 대한 좋은 정보가 교류되고 열띤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석대상 동문들의 바쁜 시기적 상황으로 참여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 더 유익한 영닥터스 포럼으로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이화의대 졸업선배님으로써 의과대학 및 의전원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생명을 다루는 의사이기에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기초가 튼튼한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학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성실히 살아야하며,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는 나만 아니라 이웃도 돌아보며 이화의 정신인 섬김과 나눔도 실천하며 살아야하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처럼 공부나 일을 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백이 되어줄 4천명이 넘는 동문들이 있는 이화인임을 잊지 마시고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오혜숙 동창회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과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며 후배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선배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4천여명의 동문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자세와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동창회장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동창회장님을 인터뷰하며 진정한 이화의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의예과 2학년 이주연, 의전원 2학년 송지혜 기자〉



나눔을 통해 행복을 얻다.

천안이화병원 이종민 원장님(29회 졸업 산부인과) 인터뷰

지난 7월, 학생기자단 의예과 2학년 김수빈, 이주연 학생은 천안에 위치한 이화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산부인과, 내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과가 포함된 천안 이화병원은, 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따뜻함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자단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 주신 이종민 원장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Q 천안 이화병원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천안 이화병원의 모토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산부인과에서의 요람의 의미는 물론, 무덤까지 책임지자는 마음으로 재활요양병원인 이화피닉스병원까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병원의 미션은 PAD(Perfect, advance, devotion)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완벽함에 가깝게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과, 본인의 삶을 직업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Q 이화병원처럼 여성을 위한 병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지, 또한 여성 병원의 역할에서 천안 이화병원만의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A 보통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질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여성들은 발생률, 원인, 예후까지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 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천안 이화병원의 경우 여성 고유의 질환에 집중합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취약하고 후유증이 높은 질병을 다루는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등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며, 재활의학과의 경우에도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변이에 집중합니다.

Q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봉사와 기여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우 열정적으로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시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누는 삶'을 하고 살고자 마음 먹으신 동기는 무엇인가요?

A 당시 이주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고민 끝에 한국에 잘 적응하실 수 있게 이주 여성 멘토링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남편, 친정 등에도 마음을 쓰며 위로를 얻게 도와드렸으며, 현재는 이주여성분들 고용산업 등에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희정복지재단은 이제 요양원과 노인복지보호센터등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 표정이 상당히 즐겁고 행복해 보이시기 때문에 다녀오면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과 사랑의 과정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큰 계기가 있어서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Q 아직 의예과생인 저희가 앞으로 어떤 태도로 공부에 임해야 할지, 지향하는 목표는 어때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분명한 것은 의사라는 직업은 나보다는 환자를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 온 것이 그 환자 분들에게 행운이 되게 하자.'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는 나아가서 나를 만난 것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득이 되게 하고자 하는 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소식지를 읽는 저희들, 즉 후배들에게 조언이나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첫 번째로, 이화여대는 참 좋은 학교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일을 직접 하면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학생 때 가능하다면 의대가 아닌 공학, 인문학 등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귀를 기울이며 시야를 넓게 가지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을 위해 여행을 하되, 어려운 지역을 다녀 보면서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직 병원 현장을 많이 다녀 보지 못한 학생기자단에게는 좋은 멘토를 만나 조언을 얻는 것과 더불어 실제 병원을 접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발로 뛰시며 많은 분들을 돕고 돌보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소식지를 통한 후배들과의 소통에 응해 주신 이종민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예과 2학년 김수빈, 이주연〉

동문인터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학생소식

의료현장체험학습

의예과 2학년 이주연

이번 2016학년도 1학기,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은 '의료현장체험학습'이라는 강좌를 수강했다. 이 강좌는 류동열 교수님의 지도하에 산부인과, 내분비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과와 의무기록과, 사회사업과 등 병원의 다양한 곳에 견학을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체험하는 강좌이다. 10년 만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예과의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새로운 강좌가 개설되었다. 많은 강좌들이 개설되었지만 그 중에서 '의료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병원의 다양한 과와 부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다. 아직 의학적 지식이 많이 없는 예과생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전공의 선생님들 등의 말씀을 다 알아 듣기 힘들었다. 학생 신분으로 병원 곳곳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았다. 예과 학생들을 담당하는 분들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들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대략적으로나마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바쁘신 와중에도 잘 챙겨주셔서 많은 경험을 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피드백을 받아서 부족한 점들을 고친다면 앞으로 후배들에게 유익한 수업이 될 것 같다.

동아리 탐방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댄스동아리 8seconds

8seconds (지도교수: 이경은(혈액종양내과), 동아리장: 사공달(의전원 2학년))는 의예과 1학년부터 의전원 2학년까지 6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8seconds의 가장 큰 공식행사는 7월 말 여름방학 때 있는 정기공연입니다. 매해 여름방학에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서게 되는데 연습기간 동안 춤도 배우고 선후배, 동기와 같이 땀을 흘리며 힘들지만 즐겁고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행사로는 매 년 6월, 연합공연 'MeDance' 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울산대 의과대학과 함께 댄스 공연을 준비하며 타 의과대학 친구들과도 교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MeDance'를 검색하시면 여러 사진과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기 중 행림제에서 공연을 하고 타 학교 축제에도 찬조공연을 서기도 합니다. 8seconds는 흥이 넘치는 활기찬 동아리입니다. 춤 추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정말 좋은 선후배도 얻고, 인생에 다시 없을 무대도 서고, 좋은 경험과 추억이 되는 동아리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지켜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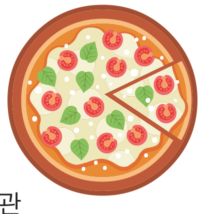
〈이화여대 의전원 2학년 송지혜 기자〉

학생단신

1.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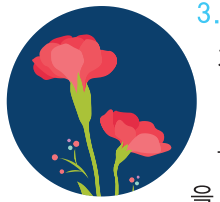
지난 5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M1, M2와 의예과 1·2학년으로, 총 4개의 학년이 함께하는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다. 이는 매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의예과 학생들의 단합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열리는 행사이며, 모든 학년이 섞여 두 팀으로 나눠진 뒤, 발야구·팔씨름·줄넘기·줄다리기·계주 등 다양한 종목을 겨룬다. 그 외에도 선·후배가 함께 하는 점심 식사, 간이 게임 등 즐거운 요소가 가득한 체육대회는 매회 학생들의 열렬한 성원과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전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피자데이



지난 4월 27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김경효 학장님께서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이 모인 강의실에 방문해 주셨다. 학장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피자데이'는 의학 대학의 미래 꿈나무인 예과 학생들을 응원 및 격려하는 의미로, 매 학기 맛있는 점심과 더불어 학장님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진행하는 행사이다.

3. 어버이 날 기념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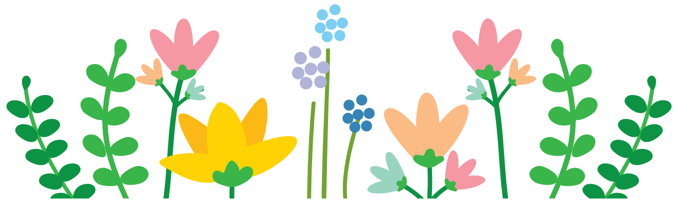
지난 5월 8일, 어버이 날을 맞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에서는 부모님께 드릴 우산을 제작하여 자선사업을 벌였다. 이 행사는 매년 어버이날에 해오고 있는 자선행사로서 자선사업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 전액을 이대목동병원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는 뜻 깊은 행사이다.

교수소식

2016학년도 제2학기 교원 보직 발령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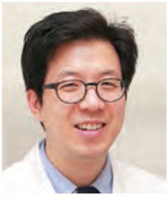
발령일자 2016.8.1

성명	보직명
김경효	의학전문대학원장 의과대학장
박혜숙	의학전문대학원교무부원장 의과대학교무부장 대학원의학과장 대학원의과학과장
신상진	의학전문대학원연구부원장 의과대학연구부장
이지희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소장
박은미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 웅	교무차장
이진화	임상교무차장
조수진	기획차장
김민석	기획차장
안영호	연구차장
최윤희	생리학교실주임교수
안정혁	생화학교실주임교수
양현종	기생충학교실주임교수
김의정	신경정신과학교실주임교수
전루민	안과학교실주임교수
임수미	영상의학교실주임교수
허정원	진단검사의학교실주임교수
우소연	의과학연구소장
안영호	의과학연구소부소장



교수 수상 및 업적

문창모·태정현 교수팀, 국제학술대회 우수연구자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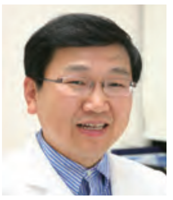


문창모 교수(내과학교실)와 건진의학과 태정현 교수 연구팀이 최근 대한장연구학회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The 1st International Meeting on Intestinal Diseases [IMKASID 2016])에서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한국인에서 폴립 절제술 후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의 비순응도의 위험인자와 임상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주 교수(산부인과학교실), 조산 위험성 진단 키트 발명 특허 등록

김영주 교수(산부인과학교실)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이근영 교수 팀은 산모의 32주 미만 조산의 위험성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IL-13(Interleukin 13)의 농도를 측정하여 32주 미만의 조산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한 조성물과 진단키트 및 진단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이 특허는 신생아의 사망과 심각한 합병증 예방을 위한 산전 진단시약 및 진단키트에 관한 것으로, 임신 중기 산모에서 채취한 양수 시료로부터 임상적 특징을 관찰하고 산모의 양수에서 IL-13의 농도를 측정하여 32주 미만의 조산 위험성을 진단할 수 있다.

유재두 교수, 대한슬관절학회 최다 피인용상 수상



유재두 교수(정형외과학 교실)가 대한슬관절학회가 제정한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KSRR)' 최다 피인용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재두 교수는 대한슬관절학회 학회지인 KSRR 2015년 3월호에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삽입물 주변 골절'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을 게재했으며, 지난 1년간 SCI 논문 저자들이 이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해 이 상을 받게 됐다.

주웅 교수(산부인과학교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올해의 논문상' 수상

주웅 교수(산부인과학교실)가 최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016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주웅 교수는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에 있어 인유두종바이러스 16/18형 유전자형 분석 검사의 비용 효과 분석'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의료기술평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한 편을 뽑아 수상하는 올해의 논문상에 선정되었다.

김휘영 교수(내과학교실), 국제학술대회 '우수 구연상' 수상

내과학교실 김휘영 교수가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대한간학회 주관으로 열린 국제학술대회(The Liver Week 2016)에서 '간암에서의 항암제 치료 반응 예측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김휘영 교수는 진행성 간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유일한 전신항암제인 소라페닙에 대한 치료 반응과 예후를 혈청 바이오마커를 이용해 예측하는 모형을 서울대병원 이정훈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해 발표했고, 학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동창소식

제10차 동기회장 및 전국지회장 정기회의

이화의대동창회(회장 오혜숙)는 지난 6월 18일 제10차 동기회장 및 전국지회장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열린 이번 정기회의는 56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우리들의 이야기'와 2부 '병원 및 의대소식',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우리들의 이야기'는 54회 전혜진 회장을 비롯한 백병원의 허양임, 성모병원의 윤상아, 차움의 서은경 동문까지 가정의학과 4인방이 이끌어가는 동기회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35회 김경희 동문의 30주년 여행 이야기와 올해의 이화의인 최건무 동문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최건무 동문은 같이 여행 가는 친구들을 위한 이화 티셔츠와 손편지로 감동을 주었고, 올해의 이화의인 행사를 치른 소회,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는 강한 메시지도 전해주었다. 40회 김유경 동문은 이문세 노래를 배경으로 동기들과 함께 한 추억의 장면들을 보여주었고, 졸업 25주년 기념으로 다녀온 일본 나오시마 섬 여행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뒤이어 김이준 동문은 04학번으로 ECC 공사현장에서 있었던 일과 더불어 의전원으로 바뀌기 전 마지막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입학했던 우수한 동기들 자랑을 해주었다. 38회 정은주 동문은 천안지회 재무이사로서 지회소식을 전해주었고, 마지막으로 신입회원 이은혜 동문의 65회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올해 학교를 졸업하여 65번째 동기회를 이룬 이들은 체육대회와 행림제 등 축제를 통해 끼를 발산했던 모습을 보여주며 "이화가 우리에게 훌륭한 배움터였고 환자와 함께 일하는 의사들이 감탄하는 이화의 의사가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동기대표 조희진 동문의 편지로 마무리했다.

2부 '병원 및 의대 소식'은 오혜숙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어, 새 병원 건축의 진행,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화의료원에 뉴미션과 비전 선포식 등 병원소식을 나누었고, 의대소식으로는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인증평가 결과, 졸업 30주년과 50주년 행사 등을 전하였다. 마지막 소식으로 400명이 넘는 동문들이 90억원 가까이 기부약정을 했다는 병원건립 모금현황을 발표했다. 만찬 후에는 지난 동기-지회장 회의에 이어 박주현 교수의 인도로 오페라를 즐기며 제10차 동기회장 및 전국지회장 정기회의가 마무리되었다.